

## 미리보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D-7

중 프로젝트전

본 전시가 실생활과 관련된 디자인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 프로젝트 전은 환경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특화된 전시이다.

프로젝트 전은 남구 양립동 일대의 길거리 전시인 '어울림', 여성의 마음과 삶의 방식으로 지구 환경을 살린다는 에코디자인 '살림(Design to save)' 전, 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살핌(Design for Care)' 전 등으로 펼쳐진다.



'어울림' 프로젝트가 열리는 광주시 남구 이장우 가옥.

## 지구·인간 살리는 '디자인의 마력'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광주의 멋집·맛집 공개

여성들 재활용 텁실 이용 뜨개질 퍼포먼스도

계층에게 따듯한 디자인을 선물해주는 전시이다. 여성의 관점에서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삶의 방식을 촉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세계의 여성들이 재활용 텁실을 이용해 큰 이불을 뜨개질 하는 '뜨개질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환경을 고려한 세계 각국의 에코디자인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서울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400여 주민이 지난달 2만개의 수세미를 끼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전달했다.

이 수세미는 전시장에서 판매되고, 수익금은 네팔의 가난한 어린이 교육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 측에 전달된다.

▲인간을 위한 디자인, 살핌=노인과 장애인

들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소개한다.

학생, 노인 등 34명으로 꾸려진 'UD탐험대'가 실제 광주 도심을 다녀보고 생활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안한 뒤 이를 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UD탐험대'는 광주역, 비엔날레 전시관, 동구 웨딩의 거리를 둘며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찾아내 글과 사진으로 자료를 남겼다. 이를 전시장에 소개하고, 향후 관계기관의 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전달하는 행사이다.

/오향록기자 kroh@kwangju.co.kr



'클루 브랜드' 전에 출품한 리얼 와인잔.



- 학원, 또는 사무실 개업! (주차사정 200)
- 현대식 도시교촌, 네이버밀고 자발한 배
- 최첨단 업무로! 글과 글, 관리와 협동.

인테리어

18	20	30	60
100명	110명	110명	80명

• 대상: 광주광역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 대상: 광주광역시민 누구나 가능합니다.